

일공 교토대생의 모습

8기 김정훈 (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일주일에 듣는 수업수와 졸업학점에 관해서...

1주일에 17コマ(1コマ:1시간만, 하루에 최고5コマ)를 듣습니다. 졸업학점은 134학점인데, 1학년때 55학점 정도 듣습니다. 3,4학년이 되면 전공과목을 들어야해서 1,2학년때 교양수업(기초수학포함)을 많이 들어놓습니다.

-인상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전기전자공학과 1학년에 배정된 수업 중에 '자연현상과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초수학에 관한 수업인데, 조를 짜서 일주일에 한시간씩, 전기전자기초실험을 하고, 실험에 관해 토론을 합니다. 실제 전기이론과 실험에서의 차이를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장학금으로 생활은 어떤가요?

동경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값값이 비싸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되지만, 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은 아닙니다.

6기 정지혜 (농학부 응용생명과학과)

-농학부의 교육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농업'이라는 게 꼭 논매고 밭일구고 하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지구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배우나가고 있습니다.

-응용생명과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1,2학년 때는 주로 교양 위주의 수업과, 어느 정도의 전공과목을 듣습니다. 3학년은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정말로 치밀하게 정성껏 준비된 학생실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연구실을 배정받아,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교토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교토는 일본 사람들도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연과 일본의 전통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문화까지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토대로 오세요!ㅋㅋ

4기 오지민 (공학연구과 전기공학전공)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학부 때부터 수업이나,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선생님 연구실을 가게 되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 직접 가서 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배들의 평판을 들어보고 결정한 연구실이기 때문에 같은 대학원을 가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군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보통 일공 선배님들은 대학원 석사과정 후 병역특례로 군대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박사과정까지 간 후에 해결을 할까 합니다. 군대문제 때문에 불안한 점이 없진 않지만, 주위 연구 환경과 사람들이 좋아 박사과정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병역특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유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京都大学

교토대학홈페이지

<http://www.kyoto-u.ac.jp>

京都大学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교토대학

교토대학은 창립 이래 이어온 자유의 학풍을 계승·발전시켜오며 다원적인 과제해결에 도전해왔으며 지구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에 공헌하기 위해 자유와 조화를 기초로 하여 연구, 교육, 사회와의 관계, 운영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한다

-교토대학 기본이념-



@ 요시다캠퍼스 정문

제작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교토대학 심승우 오지민 이민주 정지혜



지구공학부

20세기 문명은 인구 급증 및 산업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그에 따른 자원의 대량 소비와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켰으므로, 심각한 모순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과 환경관 즉, 새로운 지구관에 기초하여 각 학문을 재구축하고 각 분야별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지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양식을 구축하는 실학으로서, 「지구공학」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고도대학 건축학과는 휴먼 기술 추구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의 특색에 맞추어 교과 과정도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넓은 분야에 걸쳐 있으며, 졸업 후 진로 또한 건축가, 건축 기술자, 행정 담당자, 각종 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기획 담당자 등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자연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더 나아가 예술적 측면에도 깊은 관심이 있는 학생도 환영하며, 각자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공학과

공학은 인류의 꿈을 실현할 새로운 과학 기술 창출을 목표로, 지적 창조 활동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고도대학 물리공학과에서는 물리에 관련된 지견을 바탕으로, 기계시스템, 재료, 에너지, 우주공간활동 등에 관한 과제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전문 능력과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은 현대 모든 산업과 사회 생활의 기반으로 없어서는 안될 과학기술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주요 에너지원인 전력을 고효율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모든 전기·전자응용기기의 고효율화와 인간사회·지구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도대학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자연현상과 과학기술, 그리고 인간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왕성한 탐구심을 가지는 것과 함께, 전기전자공학관련 학살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공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기초학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겸비한 창조성 풍부한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학과

현재 고도 정보화 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은, 대규모화, 복잡화되어, 각 공학전공분야가 융합된 형태가 보통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대 과학기술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스템 전체를 횡단적으로 인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구하는 '수리적 사고'가 불가결합니다. 고도대학 정보학과에서는, 글로벌화, 과학기술 진전 등 사회의 격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가진 인재 육성을 목표로 종합적인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화학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과 의약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첨단재료의 창조,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및 변환 방법, 자원을 유용하게 이용하여 환경 파괴를 막는 기술의 개발 등 '화학'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질·재료를 만들고, 반응을 제어하는 기초화학과, 물질·재료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학이 융합되어 비로소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자와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 유기화학·무기화학을 시작으로, 화학의 기초 이론은 물론, 물리화·생물학등과의 경계영역에 있는 화학 및 그와 관련된 공학 기초 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물과학부

자연생물과학부는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육지나 해양에 생육·생식하는 자연생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생물을 외부의 적이나 병으로부터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육·생식에 적합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과 함께, 유용물질·유전자 등의 유효한 이용이나 지금까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열악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개발을 목표로 하는 등, 자연생물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의 다면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용생명과학부

생물자원의 생산·가공·이용·보존 등의 전 측면에 포함되는 화학적·생물학적 원리의 탐구와 그 응용에 관한 여러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미생물, 식물, 동물 등과 같은 생물의 생명현상이나 생명기능을 화학, 생물학, 생화학, 물리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등을 기반으로 깊이 있게 탐구·이해하고 (바이오사이언스), 한편 그 성과를 농·의약, 식품, 화학 제품을 비롯한 생활관련 유용물질의 고도의 생산과 이용에 적용 (바이오테크놀로지)하기 위한 기초 교육과 첨단 연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공학과

지역환경공학과는 환경과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식량생산, 지구환경을 포함한 환경·에너지 문제의 해결, 환경 공생형 농촌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공학·기술학을 수단으로 하여 연구·교육을 행합니다. 물 순환의 효과적 제어에 의한 귀중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애셋 매니지먼트(농업수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에 의한 생산 환경의 증진, 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대기·물·토양 환경의 실현, 농촌계획과 주민주체에 의한 지역 만들기, 정밀 농업에 의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 로봇이나 IT를 이용하는 미래형 농업의 추구, 농축수산물과 식품생산에 관한 계속과 제어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21세기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식료·환경경제학과

식료·환경경제학과에서는 우리의 생활에 가장 관련 깊은 식량 및 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개발 도상 국가의 빈곤문제, 기술 개발 보급, 농업 수산물의 무역 문제 및 식품의 안정성, 더 나아가 농어촌의 사회 경제 생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지구 환경 자원의 보전과 양립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및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삼림과학부

환경 보전을 고려하며 자연의 자원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 삼림의 지속적 관리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림과학과에서는 삼림 생태계의 기능, 구조와 물질 순환을 기초로 삼림 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기술, 목재와 종이를 비롯해 셀룰로스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입입 생산물의 이용방법, 물과 대기 등의 보전에 있어서의 삼림의 역할, 더 나아가 이들의 사회과학적 평가들을 테마로 하여 폭넓게 삼림을 다루는 교육 및 연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생물과학부

식품생물과학과에서는 식품을 구성하는 물질의 구조와 기능, 새로운 기능을 지닌 물질 및 유전자의 탐색,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비롯해 영양과 안전성 등에 뛰어난 식품의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지구 규모에서의 식환경 등 식품 안전에 걸친 여러 문제를 미생물, 식물,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료 과학의 학술적 진전 뿐 아니라,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함께 식량부족의 개선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풍족한 식생활 확립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교토대인(1)

교토대 역대 노벨상 수상자

- 湯川 秀樹 (1949, 물리학상) 朝永 振一郎 (1965, 물리학상)
- 福井 謙一 (1981, 화학상) 利根川 進 (1987, 의학·생리학상)
- 野依 良治 (2001, 화학상) 益川 敏英 (2008, 물리학상)

세계 속의 교토대인(2)

교토대 역대 필즈상 수상자

(역대 일본인 3명 수상)

- 広中 平祐 (1970)
- 森 重文 (1990)